



2008 만해축전, 심포지움 시상식 공연 등 풍성한 '통섭의 마당'

“만해의 가르침 세계로 세계로...”



축제는 끝났다. 그러나 여운은 깊다.

건국 60주년, 현대시 100년, 만해축전 10년의 의미를 담고 설악산 만해마을에서 열린 2008만해축전. 올해도 전국의 문학인과 예술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만해축전은 자유와 평화를 가르친 만해의 정신을 되새기고 세계로 전파하자는 다짐의 자리였다.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만해축전에서는 만해대상 유심문학상 시상식을 비롯 학술심포지움과 시인학교, 고교생백일장, 시낭송, 공연 등이 이어지며 문화와 세상이 소통하는 길을 넓혔다. 특히 만해학술원이 주관한 '한국현대시 1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과 만해 정신의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틀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5차례로 나눠 진행된 심포지움의 기조강연에 나선 이어령 前 문화부장관은 "한국시의 세계화는 불가능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글로 된 시를 제대로 읽는 것에서부터 번역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기조강연에 나선 김중길 고려대 명예교수도 "시를 언어적 측면과 의미의

측면에서 제대로 읽는 것에서 번역의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 전문 buddhanews.com에)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12일 오후 5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인 지관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승 스님을 비롯한 교계 중진 스님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만해 평화의 종 타종을 시작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평화부문에 로카미트라 잠부드비파회 회장, 문학부문에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학술부문에 김태길 박사, 포교부문에 도선사 주지 선훈해자 스님과 로버트 버스웰 UCLA대 교수 등이 영예의 만해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민족애와 조국애를 실천한 만해 한용운 큰스님의 뜻을 이어 각자의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며 만해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세계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

인 로카미트라 법사는 "저는 이런 교류와 대화를 통해 3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의 신불교도들이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의 풍부함을 물론 만해 스님과 같은 위대한 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해축전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8월 중순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며 국내에서 가장 크고 뜻 깊은 문학축제로 자리 잡았다. '유심상'과 '유심신인상' '유심시조백일장' 등 한국문학의 성장과 저변확대를 주도하며 문학을 통한 불교정신의 세계화를 주도해 왔다. 특히 만해대상은 그 폭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로 넓혀오며 상과 수상자의 권위를 함께 높였다.

비보이 공연을 비롯한 젊음의 향연과 세계적 지성의 학문과 문학의 향기를 두루 통섭하는 포괄적인 문화향연으로 자리 잡은 만해축전은 내년에도 더 진화된 주제로 '기린님'들을 찾아 갈 것을 기약하며 8월 14일 만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와 (주)LG데이콤의 전략적 제휴



인터넷 전화 무상 보급

“스님, 불자님”
아직도 인터넷 전화로 안바꾸셨습니까
불자님들과의 무료통화를 제공합니다.

불자간
무료
통화

언제 어디서나 myLG070 070번호 불자님들과의 무료통화

문자
전용폰

문자 메시지로 불자간 공지사항을 전달해보세요.

전국
단일
시내요금

시내, 시외의 불자님들과 전국 단일 최저요금으로 통화하세요

※ 전사철에 인터넷 전화기를 무상 보급합니다.

‘(주)LG데이콤과 함께 지금 바로 불자님들의 가계통신비를 줄여보세요’

■ myLG070 신청 문의
지금바로전화상담!

www.gomylg070.co.kr

070) 7561-0352

◆ (주)LG데이콤은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와 함께 정보화산업을 진행합니다.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 (주)LG데이콤 myLG070
전략적 제휴 조인식
2008. 7.

